

장애학생 비대면 강의 학습권

장애학생 학습권 개선 ‘지지부진’, 본부도 지원 여의치 않아

이정민 기자 michellejm@khu.ac.kr

시각장애를 가진 우리학교 학생 A씨는 비대면 학사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와 같은 학생들이 겪는 큰 문제는 비대면 강의 플랫폼이 시각장애인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는 “비대면 강의 플랫폼이 구글클래스룸에서 e-campus로 바뀐 상황이지만,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는 e-campus 접근이 어렵다”며 “대부분의 강의에서 교수님들께 따로 녹취 파일을 제공받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애학생 지원 원할치 않아

서울캠퍼스(서울캠)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공개한 ‘2학기 장애학생 지원 방안’은 ‘강의자료, 대본 등은 강의 업로드 전까지 센터를 통해 장애학생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몇몇 교수는 강의일이 지났음에도 강의 파일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수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메일을 보내면 교수님이 답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개인 연락처는 제공할 수 없다고 해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일반 활자로 된 책을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학기가 시작된 후에야 ‘교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일부 교수님도

있어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있다”며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일부 지원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코로나19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캠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비대면 도우미 활동이 이전 학기에 한 차례 이루어진 만큼, 장애를 겪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 방식으로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 음성을 문자로 통역하는 서비스인 ‘소보로PC’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보로PC’ 도입, 일각선 문제제기도

이 소보로PC 도입과 관련해 회의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타 대학에서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고려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측은 소보로PC를 장애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가 “소보로PC는 속기의 정확성이 부족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해 무산되었다. 고려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는 “소보로PC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전공용어의 경우 인식이 더디고, 언어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에 고려대 측은 전문 속기사를 고용해 강의 속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 B씨는 “속기사를 고용하면 수업 진행 속도에

맞추어 즉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좋을 것 같지만, 비용 문제로 어렵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간 수업에서 교수님과 학우 분들께서 발언 속도를 조금만 느리게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된다”며 “비실시간 수업에서는 화자의 얼굴이 보이도록 배려해주면 차질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매학기 장애학생 도우미를 선발해 장애학생의 학업과 교내 생활을 돕는다. 코로나19로 수업 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도 그 모습이 점차 바뀌고 있다. 서울캠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비대면으로 바뀐 지금은 강의 자료를 번역하거나,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메일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우미 활동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우리학교의 또 다른 장애학생에 따르면 “대면 수업에서는 교수님 허락 하에 녹음을 했지만, 현장 소리가 섞이는 등 음질이 좋지 않아 도우미 분들이 많이 난감해했다”며 “비대면 수업에서는 음질 문제에 대한 걱정은 떨어져 질 좋은 스크립트를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학생 도우미 구인 어려움 많아”

문제는 이런 장애학생 도우미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지원하는 학생 수도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캠 장애학생지원센터 측은 “매번 도우미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학기에만 세 차례 추가모집 공지가 이루어진 바 있다”



우리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소보로PC’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사진=이정민 기자)

고 밝혔다. 학기가 시작하고 몇 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도우미가 구해지지 않은 과목들이 존재한다. 센터 측은 지금도 교내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를 추가 모집 중이다.

도우미 선발은 1차 서류 신청, 2차 비대면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선발 기준은 해당 학기 재학 중인 학생, 성실하고 봉사 마인드가 있는 학생, 장애학생과 같은 소속의 활동 학생, 해당 과목 기이수자 및 동일 전공생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장애학생과 같은 소속, 해당 과목 기이수자 및 동일 전공생을 우대한다. 서울캠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여러 학생이 지원해야 이런 우선순위가 의미가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여차하면 중도포기할 거란 우려에 도우미에게 많은 활동을 맡기기도 어렵다. B씨는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서 타자 내용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인 ‘웨어타이핑’을 통해 도우미

학생이 치는 자막을 보며 공부한다. B씨는 “도우미 학생도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기 때문에 타이핑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같은 비대면 방식이라 하더라도 실시간 수업은 학업에 차질이 생기기 쉽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도우미의 활동 범위가 공식적으로는 실시간 수업 이후 사전 녹화된 영상을 제공받아서 스크립트를 보충하는 것까지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부담하게 하면 도우미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할 것 같아서 말하기 꺼려진다”고 털어놨다.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활동을 하면 시급 9,000원 수준의 도우미 장학금이나 교내봉사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혜 가능하다. 하지만 A씨는 “도우미 학생들 역시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대학생이므로, 장애학생의 학습 보조까지 담당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도우미 활동에 대한 보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주보 69기 수습기자 모집

- 모집대상**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재학생, 복학생, 휴학생
- 전형일정** - 서류전형(지원서 작성): 9월 7일 월요일 ~ 9월 25일 금요일
- 면접일시: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후 일정 조율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입사 지원서 및 필기시험 작성 후 제출)
- 2차: 개별 면접 진행
- 접수방법**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 팝업창에서 입사지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제출
- 주요업무** - 학내 뉴스 아이템 발제
- 발제 아이템 기획 및 취재
- 온라인, 지면 기사 작성
- 활동혜택** - 장학금 지급(최대 전액)
- 원고료 지급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 메시지
- 대학주보 인스타그램 DM (@khunews_jubo)
- 연락처: 편집장 김지원(010-9865-0804), 문의사항은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 전 화: 02-961-0095 (서울캠퍼스 편집실), 031-201-3232 (국제캠퍼스 편집실)